“내 과업, 문학에 불교담아 널리 알리는 것”



정영자 영축문학회 회장은 2010년 성파 스님과 함께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9년 영축문학회 창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사진은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합장 하고 있는 정영자 회장.

정영자
통도사 영축문학회장

글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 발족시켜
서운암 들꽃 축제와 문학 연결 포교
2010년부터 꽃관련 시 2449편 소개
영축문학회 창립으로 영축문화 확대
한국여성문학연구 1세대 문단 원로
신라대교수 부산문인협회장 등 역임
작품 10여 편을 시극 등으로 발표해
“불교와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게 꿈”

매년 봄이면 통도사 서운암은 온통 꽃세상이다. 매년 열리는 서운암 들꽃국제는 대표적인 사찰꽃축제 중 하나다. 서운암 주변 100만여 평에 조성된 꽃밭에서는 유채꽃, 할미꽃 등 100여 종의 야생화를 볼 수 있다. 2010년부터는 축제기간 동안 꽃을 시제로 한 시화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통도사는 2010년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시인들을 통해 꽃을 시제로 한 시를 공모했다. 그렇게 공모된 시들을 시화로 만들어 꽃과 함께 전시했으며, 시집으로도 발간했다. 꽃과 문학을 활용한 새로운 포교다. 그렇게 서운암 꽃밭에 걸린 시는 지금까지 2449편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2019년 통도사는 꽃과 문학을 이용한 포교를 서운암에서 통도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영축문학회를 창립했다. 문학의 장르를 소설, 수필 등 문학 전반으로 확대했고, 소재를 통도사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확대했다. 그렇게 공모된 작품들은 〈영축문학〉을 통해 발표하고 매년 영축문학상을 시상한다. 문학과 자연, 사찰을 연계한 통도사만의 포교라고 할 수 있다. 그 불사의 중심에는 영축문학회 초대 회장 정영자 작가가 있다. 정 회장은 2010년 성파 스님의 도움으로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를 출발시켰고, 영축문학회 창립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구랍 17일 정영자 회장(80)을 영축문학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 최초 여성문학연구가와 통도사

통도사가 자연과 문학을 활용한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영자라는 문학가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한국여성문학연구의 1세대 작가로 한국여성문학을 최초로 정리한 문단의 원로다. 신라대 교수와 부산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정 회장은 문단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사회 전반이 남성을 중심으로 했던 시대를 살면서 크게 조명 받지 못했던 여성의 문학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정 회장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시대상에서 볼 때 결코 평범한 학력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시대에서도 정 회장의 집안은 그런 시대상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었다. 부친의 열린 사고 덕분에 정 회장은 ‘남 · 녀’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깊은 학문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시대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확고한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

정 회장이 당시에 조명 받지 못하는 우리 여성문학을 조명하고 정리하고 발전의 장을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는 그의 시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정 회장은 최초로 우리의 여성문학을 연구해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학에서 〈한국현대문학사〉를 강의하며 남성문인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 문학사에 여성문인들을 발굴해 우리 문학사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1978년 〈김남조론〉을 시작으로 〈허영자론〉(1983), 〈강신재 소설연구〉(1984), 〈박화성 소설연구〉(1985), 〈강경애 소설 연구〉(1985), 〈최정희 소설 연구〉(1986), 〈노천명 연구〉(1986), 〈홍윤숙론〉(1986), 〈김말봉 소설의 양면성〉(1986), 〈모윤숙 시의 연구〉(1986), 〈김일엽 문학 연구〉(1987), 〈오정희론〉(1987), 〈나혜석 연구〉(1987) 등 그의 성과는 모두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이어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이 정리해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시시했어요. 새로운 분야는 힘겹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여성문학인을 연구하는 것은 무덤에서 그들을 불러 이름표를 하나 씩 붙여 세상에 다시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 회장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부산여성문학사〉도 정리했으며 시집 〈자화상〉과 그동안 전국 고찰을 방문하고 지은 시를 모아 시집으로 발간할 계획도 있다. 정 회장의 가장 큰 원은 무엇보다 문학이 좀 더 많은 대중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의 중요한 키워드가 ‘불교’다.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서 알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 회장은 2008년 이후 10개가 넘는 문학 작품을 시극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작품화했다. 그 중에 2019년 3월 발표한 〈훈민정음과 신미대사〉는 영화 〈나랏말싸미〉보다 4개월 앞서 시극화돼 발표됐다. 또 부산역사의 시작을 가야 시대 장산국으로 보는 내용을 시극과 뮤지컬로 발표해 공연하기도 했다. 정 회장 문학은 3가지 큰 축으로 정리된다. 비평가로서의 문학, 시집과 수필집 등 꾸준한 창작 활동 그리고 여성문학과 여성문학사 연구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불교가 있다.

오래된 문학, 오래된 불연

정 회장은 1940년 남해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성장했다. 남해와 통영의 어린 시절은 정 회장 문학의 원천이다.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언덕 위 뽕나무 숲길, 복숭아나무 가득한 과수원, 창호 너머 보이는 나무들과 바다, 그리고 떠다니던 배 ….

정 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충무시 문화단체와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중 · 고등학교 시 백일장에서 장원했다. 정 회장은 그 때 국문과로 진로를 정했다. 정 회장의 문학이 그렇게 시작됐다면 정 회장의 불연은 숙연이라고 할 수 있다. 정 회장의 말에 따르면 정 회장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불교와 실학에 인연이 있었다. 정 회장의 부친은 국보 1호 숭례문과 세종대왕 당시 내불당(궁궐 안 법당) 건립을 감독한 정분(鄭苯)의 18대손이다. 부친은 정 회장의 정체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천’과도 같은 부분이다. 그 영향은 지금도 정 회장의 마음과 정신에 면면히 살아 있다. 부친이 물려준 것 중에는 ‘새벽’이 있다. 부친은 새벽이면 일어나 차를 다리고 한시를 읊고 불교경전을 읽었다. 어린 정 회장은 새벽이면 부친의 차향을 맡으며 잠에서 깼고 자연스럽게 책을 잡았다. 그래서 정 회장은 어릴 때부터 새벽 2시면 일어났다. 누구보다 이른 새벽에 깨는 건 오래된 습관이다. 홀로 고요하게 머문 시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깨우는 근원이 됐다. 그렇게 정 회장은 새벽 홀로 있는 시간에 니체를 만나고 톨스토이를 만나고 부친의 독경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정 회장의 성장에는 불가적 정서가 깊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이 시대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라고 했다.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고통을 마주하는 지금, 작가들은 고독의 힘으로 풀어 낸 희망의 글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공업(共業)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이라고 했다.

불교 · 문학 세계로

정 회장은 현재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학회 회장이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명예 이사장이다. 정 회장의 발자취는 도전을 통해 개척의 길을 닦고 문학인들의 미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것이 영축문학회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축문학회에 대한 정 회장의 꿈은 원대하다.

“문학에 우리 불교를 담아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우리 문학과 불교를 알려야지요. 한류의 한 축이 되어야지요.”

영축문학회 탄생의 첫 발은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권유에서 시작됐다. 서운암 들꽃축제 때 전국 문인들의 행사를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신라대 교수 퇴임 후 부산문인협회 회장으로 정 회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성파 스님의 안목이 남다른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불사를 말씀하셨을 때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술과 문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문학인의 무대를 함께 만들자는 권유는 기쁨이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에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꽃을 주제로 전국 시인들의 시를 받아 시화를 걸고 시집을 발간했다. 이제 서운암 들꽃국제는 서운암 전국 시인들의 잔치다. 해마다 245편의 시가 모였고 10년 동안 2449편의 시가 서운암 경내에서 전시됐다. 꽃 시집은 지금까지 총 10권이 발간됐다. 올 4월 24일에도 250명의 문인들이 작성한 꽃 시는 서운암 경내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시집도 출간될 예정이다.

전국문학인 꽃축제운영위원회는 2019년 통도사 영축문학회의 모태가 됐다. 영축문학회는 시와 소설, 산문 등 모든 장르의 문학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회원은 이미 300명을 넘었다. 통도사를 주제로 전국의 문인들이 참여해 출간한 〈영축문학〉 창간호(2019)에는 130여 명의 회원이, 2020년 2집에는 163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배경이고 주제인 문학작품만 300편이다. 문학사에도 불교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2년 만에 만든 결과이고 성과다. 정 회장은 “앞으로 영축문학회의 내실을 더욱 단단히 해 통도사와 불교를 주제로 영축문학회를 전국에서 최고 문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년의 첫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주제는 전 세계 문학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새로운 장르로 멋지게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축문학회를 통해 통도사도, 불교도 우리 문학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9일 열린 영축문학회 현판식.



한국여성문학을 최초로 정리한 정영자 회장.

정영자(鄭英子) 회장은

1940년 남해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성장했다. 1980년 〈현대문학〉 평론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졸업 후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부산광역시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창립 회장(1993) 및 설립이사장(2005), 문학계간지 〈여기〉 창간(2004) 발행인 및 편집인(48호 발간)이었다. 현재 편집고문이다. 현재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학회 회장(전국문학인꽃축제운영위원장), 한국문인협회 고문,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1987년 한국문학평론가상(한국평론가협회), 1994년 부산시 문화상 (부산광역시), 1997년 한국비평문학상 (한국비평문학회) 등 다수 수상했으며, 〈한국문학의 원형적 탐색〉(문학예술사, 1982), 〈현대문학의 모성적 탐색〉(제일문화사, 1986), 〈한국현대여성문학론〉 (지평, 1989) 등 문학 평론집 21권과 수필집 21권, 시집 16권, 평전 1권, 창작시극집 1권, 저자활동집 1권 등 총 61권의 저서가 있다.